

어명소 2차관, 철강업계 피해상황 점검

- 당진항 현대제철소 찾아 운송현황 확인 및 대책 논의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7일(수) 오후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재 운송현황 및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집단운송거부 이후 지난 11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동 제철소를 방문한 어 차관은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, 현대제철, 당진시, 당진경찰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 -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제철 관계자는 “집단운송거부로 제품 출하 지연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협력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, 향후 운송 문제가 계속되면 생산차질도 우려 된다”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.
- 이에 어 차관은 “철강산업은 자동차·조선 등 핵심산업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”고 말하면서,
 - “정부는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니 화주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출하해서 관련 업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달라”고 밝혔다.
 - 또한 함께 참석한 당진경찰서 및 당진시 관계자에게 “화물연대의 운송방해, 공장 앞 도로의 집단 불법주차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대응하고, 기업의 운송 호위 요청 등에 대해서는 총력 지원을 부탁한다”고 당부하였다.

2022. 12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